

소비릴레이·1사 1담당제...경제살리기 '번뜩'

전남 지자체 코로나 극복 안간힘



나주시가 마련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영세한 지역경제는 더 힘겹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코로나19에 맞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시민과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있어서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절실한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들의 아이디어가 제치었다.

◇'학교급식 납품농가 돕자'... '농산물 꾸러미' 운동

나주시가 위기에 처한 딸기농가에 이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농가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길이 막힌 농업인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학교가 개학하는 4월 초까지 나주시 공직자를 비롯해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한다.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 중 보관기간이 짧아 유통 여건이 열악한 시금치·부추·얼갈이 등 업체류 5~10가지 품목으로 구성돼 구매자가 지정장소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령한다.



곡성군은 전통시장서 1만원을 사용하면 장미 3송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나주시, 학교 납품 딸기농가 '농산물꾸러미 사주기' 운동

곡성군, 전통시장서 1만원 이상 구매면 장미 3송이 증정

무안군, 지역 기업 '1사 1담당제' 운영...현장 애로 해결

앞서 나주시는 지난 달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시청, 유관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참여한 딸기사주기 운동을 통해 목표치인 1000박스를 크게 웃도는 2653박스를 판매했다.

◇전통시장서 1만원 쓰면 장미꽃 3송이

곡성군은 전통시장과 화훼농가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지출하면 지역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장미 3송이 또는 알스트로메리아 1단을 증정하는 행사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차례, 옥곡전통시장과 석곡 전통시장은 지난 19일과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진행했다.

곡성군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도 살리고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또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식당 이용하기, 심정상품권 사용하기 등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지난 2월부터는 다양한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꽃 소비 릴레이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무안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1사 1담당 운영

무안군은 지역기업의 위기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산 군수를 비롯한 과·소·읍·면장 및 팀장급 공무원 212명이 지역기업 1개사씩을 담당해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지역기업에 전남도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금융자금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안내하고 방역 소독약을 배부했다. 감염병 예방 수칙과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도 당부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 공감 행정으로 참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기업하기 좋은 무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장성의 한 폐차장이 폐차량을 도로변에 버섯이 방치하고 있다.

행정당국 비웃는 폐차장 '배짱영업'

장성군 불법행위 경고 불구 업체 수개월째 도로변 방치

장성의 한 폐차장이 행정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아 강력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해당 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장성군 활동면 A폐차장. 주변 강변로에는 폐차량들이 널려 있다. 모두 불법이다.

폐차량들이 도로를 잠식하다보니 교통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마저 높다. 방치된 폐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일 등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오일은 자칫 대형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A폐차장의 불법행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장성군은 단속에 나서 이

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귀 명령과 함께 경고조치 했다.

하지만 A폐차장은 행정당국을 비웃듯 경고조치 이후에도 버섯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당국이 환경지도도 하지 않거나 아예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지역주민 B씨는 "도로에 방치된 폐차량은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사고위험, 환경오염 등 주민 피해도 상당하다"며 "지난해 행정당국이 단속했는데도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민은 이어 "업체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이 업체를 봐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기자 노트

불쌍 사나운 '추경' 힘겨루기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추경정(추경) 예산안 심의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16일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112억원을 포함해 총 869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는 편성된 예산 상당수가 '코로나19나 민생과는 거리가 먼 군수 치적쌓기'라며 재편성을 요구하고, 예산 심의를 4월로 미루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의회가 군정 발목을 잡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사회단체와 연대해 임시회 소집과 15일 내 추경예산안을 심의(승인)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김용기
장흥군 부시장

심의를 의회 고위 권한으로 예산 재원과 사용 용도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거쳐 편성해야 한다"며 장흥군을 맞받았다.

군과 의회의 이같은 갈등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 일색의 의회라는 특성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4·

15총선을 앞두고 추경예산 일부가 정치권과 연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발전과 봉사는 뒷전이고, 권력과 감투욕에 물 들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추태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세상에 완성이 없다. 장흥 군수와 의원들은 당파를 떠나 양보·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4만 군민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집행을 바랄뿐이다.

kykim@kwangju.co.kr

남원, 춘향골 실내수영장 첫삽 뜬다

25m 6레인...내년 10월 완공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실내수영장 건립이 본격화된다.

남원시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으로 월악동 춘향골체육공원 내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을 상반기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완공은 2021년 10월 예정이다.

수영장은 길이 25m, 6레인 규모이며,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결합한 복

합체육시설로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됐다.

남원시는 정부 공모를 통해 30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남원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의 빠른 건립을 원하는 만큼 내년 10



남원 실내수영장 조감도.

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정읍시는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해 주거복지 실현하는 '차상위 가구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읍시는 올해 사업비 1억15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23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과 보일러, 지붕수리 등 생활불편 해소와 미관 개선에 중점을 둔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0% 최대 9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채권 발행 (연간 100억 원)
- 지역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신협 815^{해방} 대출